



# ‘디지털 컨버전스의 경험’ 주제로 성황리 막내려

## 중·일 등 15개국 450여사 7만여 제품 전시... 첨단 미래 신기술 한눈에

올해로 35회를 맞는 ‘2004 한국전자전’이 지난달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등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디지털 컨버전스의 경험’을 주제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15개국에서 450여개 전자 관련 업체가 참가해 최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다. 풍성한 가을 국내 최대의 디지털 잔치 ‘2004 한국전자전’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글 신종훈 기자 / 사진 이혜성 기자

이번 ‘2004 한국전자전’에서는 디지털 TV와 휴대전화를 비롯해 첨단 디스플레이, 멀티미디어, 통신기기, 정보기기, 가전, 관련 부품 등 IT 제품들이 대거 전시됐다.

특히 이혜찬 국무총리, 조환익 산업자원부 차관, 오영교 KOTRA 사장, 김춘호 전자부품연구원장 등 개막식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은 홈 네트워크나 멀티미디어 정보가전 제품을 직접 시연해 보는 등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과 첨단 전자부품에 관심을 보이며 한 시간여 동안 전시장 곳곳을 둘러봤다.

이번 전시회는 7,500명 규모의 전시회장에 디지털가전·멀티미디어관, 정보통신관, 산업전자관, 전자부품관 등으로 구성됐으며, 국내외 기업들이 지난 1년 동안 개발한 주력 신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주최측은 이번 전시회가 “디지털 컨버전스와 유비쿼터스 시대를 이끄는 첨단 디스플레이, 멀티미디어, 통신기기, 정보기기, 부품 등 IT제품이 망라된 종합 IT전시회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MP3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PC카메라, 보이스 리코더 등 6가지 기능을 하나로 합친 초경량 포켓 캠코더, 세계에서 가장 얇고 가벼운 태블릿PC, MP3플레이어 기반 온라인 음원 서비스 등도 선보였다. LG전자는 세계 최초의 50인치대 액정표시장치(LCD) TV인 55인치 제품을 일반인들에게 처음 선보였고, 삼성전

자 역시 벽걸이TV처럼 생긴 획기적 디자인의 DLP 프로젝션 TV 2종을 내놓았다.

또 삼성SDI는 현존하는 TV용 디스플레이 가운데 가장 큰 80인치 풀HD급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TV를, 필립스는 화면 색조를 감지해 조명을 스스로 조절하는 지능형 엠비라이트 TV를 출품했다.

세계 최초의 하드디스크(HDD) 내장 카메라폰과 300만화소 디카폰, 가로화면 메가픽셀 VOD폰, 지문인식기능 내장 메가픽셀 카메라폰, 초경량 17인치 노트북PC, 네트워크 컴퓨터, 세계 최대 17인치 유기발광다이오드 등도 출품됐다.

또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3D 스캐너, 능동형 RFID 모듈,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용 수신칩, MP3플레이어 등 탄탄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 벤처기업의 제품들도 많이 전시됐다.

### 미래형 로봇 전시관 등 인기

이번 전시회에서 단연 눈길을 끈 부스는 행사장 1층 신성장동력기술시연관에서 시연된 휴머노이드 로봇.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이 로봇이 일본 혼다사의 아시오 못지 않은 고난도 동작들을 보여주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 앞뒤로 직립 보행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좌우, 시계 방향 등 다양한 동작들을 소화해 박수 갈채를 받았다.

특히 VIP 관람때는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직접 다가와 인사를 하며 악수를 나누기도 했고, 전시측은 올해 말에는 보다 인간같은 로봇이 등장할 것이라고 설명해 관람객들의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또 아이리버, LG전자, 이레전자 등 주요 전자업체들은 차기 MP3플레이어 시장을 이끌어갈 제품으로 PMP(Portable Media Player)를 대거 선보여 이 시장을 둘러싼 격전을 예고했다. LG전자는 20GB의 HDD를 내장한 '엑스프리(Xfree)' 브랜드의 신제품을 전시했으며 이레전자는 HDD가 아닌 메모리를 내장해 휴대성을 높인 '포세(force)' 라는 PMP를 처음 공개했다. 이 외에도 디지털큐브, 디엠테크놀로지 등도 PMP를 전시해 대기업, 중소기업 등이 PMP 시장 도전에 열을 올렸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는 PMP를 전시하는 대신 PDA '빅시오'를 전시하기도 했다.

#### 홈네트워크 전시관 특별한 퍼포먼스 선보여

이번 전자전에서 흥미를 모았던 또다른 전시관은 LG전자가 준비한 홈네트워크 전시관. LG전자는 이번 행사를 위해 전문 연기자들을 고용해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설치된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활상을 재미있게 그려냈다.

또 이번 전자전에는 친환경 전자제품 생산 홍보관이 따로 설치돼 관심을 모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개발한 최소 전력·최고 효율의 PDP TV·LCD 모니터와 함께 친환경 제품군인 공기청정기 등이 전시됐는데, 소음을 줄인 다양한 전자 제품과 친환경 천연 냉매를 이용한 에어컨과 냉장고도 소개됐다. 중소기업인 에코조인은 전자기판 조립 공정을 보다 환경 친화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무연·무독성의 솔더 제품 및 기술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전자부품과 산업전자 업체들이 위치한 3층 대서양 홀에는 중국 업체들이 모두 'China'라는 글씨가 새겨진 동일한 붉은 색 현수막을 내걸고 전시관 중앙을 장악, 붉은 물결을 이뤘다. 3층 전시관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한 중국업체들은 센젠AV디스플레이 등 총 55개 업체나 참가했다. 중국관 옆으로는 대만 업체 15개사와 홍콩업체 6개사가 위치해 또다른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주최측은 "이번 전시회에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대만 홍콩 등 15개국 450개의 전자업체들이 참가해 최신기술과 첨단제품을 선보였으며, 19만3,500여명의 관람객과 18억5,000만달러의 수출상당실적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주요 전자전과 개최 시기가 연계돼 전세계적으로 총 5,200여명의 바이어들이 참관, 비즈니스 상담을 했다고 덧붙였다. 